

목차

해외소식

- 04 **나마스떼, 동게스와리(인도)**
TTT 요금제가 아니라 TTT 수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이세형
- 10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JTS 필리핀과 다물록 시 평화 만들기 함께 해요 | 송지홍
- 13 **아유보완, 스리랑카**
상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이 그 상대를 최선을 다하게끔 해줘요 | 오성근
- 17 **쫘리음쑤어,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2 | 정훈재
- 20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유치원 공사를 시작하며 | 임희성

국내소식

- 22 **함께 나누는 사랑**
미주 JTS 캠페인 활동 | 임금이
우리들의 100일 | 허애영
JTS, 밀가루 300톤 육로를 통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지원 | 편집부
한지민, 김제동씨와 함께 수해피해가정 긴급지원에 나섰습니다 | 편집부

나눔회원소식

- 32 **활동터 소식**
인도 · 필리핀
- 36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해외소식 _ 나마스페, 등게스와리(인도)



TTT 요금제가 아니라 TTT 수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랜만에 싯다르타하우스(수자타아 카데미 기숙사 건물)이 시끌벅적합니다. 오늘은 수자타아카데미 중학교 여학생들의 수련이 있는 날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두 번째 수련인데 6학년부터 8학년까지 총 47명이 함께 수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그리 좋은지 매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나마스떼~ 시스터~” 하는 모습에 가슴 뭉클해지는 것이지요.

이번 수련은 TTT(Train The Teacher)수련 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교사를 위한 수련이 지요. 아니 학생들의 수련이라며 교사를 위한 수련이라니 좀 아이러니 하지요?

여기서 잠깐!

수자타아카데미는 총 14개의 유치원과 분교와 본교를 합쳐 총 3개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분교, 분교를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학교 학생들이 오전에는 유치원과 분교, 분교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중학교 수업을 받고 있지요. 한 마디로 오전에는 선생님, 오후에는 학생인 셈입니다.

수자타아카데미 중학생(이곳에서는 리더(Leader)라고 불리우는)들은 초등학교(5학년)만 졸업하면 바로 교사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생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지요. 키가 좀 큰 아이들은 그래도 제법 선생님 티가 나지만 키가 작은 아이들은 (특히 이곳 아이들은 더더욱 작고 비쩍 마른 모습들인지라) 누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본인보다 더 큰 자전거를 타고 매일 유

치원에 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대견하기도 어떤 때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한창 하고 싶은 거 하고 맘껏 놀고 싶은 나이인데 유치원과 학교를 책임져야하니 말입니다. 더욱이 유치원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끊이지 않으니 이 또한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왜 제 시간에 문을 열지 않느냐, 잘 가르치지 못한다, 특별식으로 주는 과일이 썩었다 등 하루에도 몇 번씩 학부모들의 불만을 들어내야 하니까요.

교장인 저 역시도 늘 아이들에게 “너희는 어린애가 아니다. 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런데도 뭐가 그리 좋은지 매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나마스떼~ 시스터~” 하는 모습에 가슴 뭉클해지는 것이지요.



해외소식 _ 나마스페, 등게스와리(인도)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책임의식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무거운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어떻게 유치원 교사로서 갑자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까. 본인 이름도 모르는 코홀리개 아가들을 대상으로 말합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 교사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처럼 교재와 교구라도 다양하면 좋으려만 이곳 등게스와리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기존부터 진행해 온 교사수련을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선배교사가 후배들에게 교수법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딱히 외부에서 초빙할만한 교사도 없고, 있어도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으니깐요. 교사들도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다가 후배들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선뜻 동의해주었습니다. 대학생 교사들 역시 신입 중학생 시절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겪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수업준비를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힌디, 영어, 수학 수업을 3명의 선배교사(트레이너)가 실제 수업처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힌디는 수자타아카데미의 유일한 인도인 스텝 아르준(교사 경력 12년, 현재 수자타아카데미 본교 책임교사)이 맡기로 했습니다.

아르준은 힌디 알파벳을 모두 프린트하고 베테랑 교사답게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는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책임감 있고 성실한 빠완(교사 경력 현재 수자타아카데미 5-B반과 8학년 담임교사)이, 수학은 만능엔터테이너란제이(교사 경력 현재 수자타아카데미 5-A반 담임과 8학년 부담임교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 교사 최강 3인방의 수업이 저 역시도 기대가 됐습니다.

“수업 시간 30분 모델을 만들어라!”

토요일 오후 3시. 드디어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싯다르타하우스 이용원칙과 공지

사실 유치원 교사들이 더욱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유치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르준의 수업 시간에 유독 집중하는 수련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해보입니다.



드를 하나씩 주면서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름은 잊고 새로운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세요” 수련생들은 손에 권대로 일어서고 일어선 아이들끼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르준은 더불어 아이들에게 질문을 자주하여 집중을 시켜야 한다던지, 아이들이 모두 수업을 따라오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유치원생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유치원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유치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르준의 수업 시간에 유독 집중하는 수련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해보입니다.

사항을 알고 첫 번째 수학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이 올렸습니다. 란제이의 등장에 까불까불하던 수련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란제이는 평소 말주변이 좋고 특히 유머감각이 뛰어납니다.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전혀 수업 준비를 하지 않아 내심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나 하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줄 알았던 란제이의 수업에 수련생들의 눈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세로선과 가로선, 동그라미(보름달)와 반 동그라미(반달)로 모든 숫자를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마지막은 수련생들이 원을 지어 돌다가 교사가 부르는 숫자대로 사람 수를 맞추는 놀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즐거워하는 수련생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게 맞지요?

세 번째 영어수업 모델을 맡은 교사는 빠완입니다. 교사들 중 가장 성적이 우수하지만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빠완인지라 다른 트레이너보다 수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사들, 저까지 힘을 모아 수업 준비를 도왔습니다. 수업에 사용할 과일 그림 몇 개와 동물 그림 몇 개를 직접 그리고 크레파스로 색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힌디 수업 모델로 12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아르준이 맡았습니다. 평소 아르준은 침착한 성격이면서 꼼꼼하고 세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아르준답게 차분하게, 하지만 모두를 집중시킬 만큼 완벽한 수업을 재현해냈습니다. 학생들에게 힌디 알파벳 카

사실 대학생 교사들도 일찌감치 교사생활을 시작해서(6학년부터 시작하니까요) 선배교사이지 실제로 그들의 나이도 겨우 10대 후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그림그리기에 다들 신나했지요. 빠완의 수업 시간이 되고 우리가 직접 그려준 그림들을 이용해 수업

해외소식 _ 나마스페, 등게스와리(인도)

을 하는 빠완을 보며 다시 한 번 신나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빠완의 그림실력이었습니다. 칠판에 집을 그리고 그 위에 영어로 이름을 써 넣은 다음 동물그림을 각각의 이름이 쓰인 집 위에 붙이는 교수법인데 아무리 집을 그려도 수련생들이 집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워하는 빠완을 보며 마냥 재밌어하는 우리를 향해 SOS를 보내는 빠완입니다. 그 모습에 학생들도 즐겁고 보는 우리도 즐겁고 빠완도 즐겁고... 내성적인 빠완의 수업이 그렇게 즐겁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의 수업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겨우 30분씩 총 90분을 투자했을 뿐인데 수련생들의 눈빛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옆 친구와 조금이라도 더 수다 떨 궁리로 가득 차 요리 조리 굴리던 눈동자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학생, 교사(트레이너) 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이제 수련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각 그룹 담당 교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과목과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의논했습니다. 전지에 각자 수업할 내용을 그리는 수련생들도 있고, 트레이너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수련생들도 있습니다. 종이 올리고 수련생들의 발표시간이 되었습니다. 총 일곱 개 조에서 각 한 명씩 나와 교수법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조들은 모두 8학년생이 발표를 했는데 유일하게 한 조만 6학년 수련생이 나왔습니다. 자그디스푸르 유치원 교사인 프리티라는 키가 작고 깡마른, 하지만 눈이 아주 예쁜 학생입니다. 얼마 전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넘어졌다며 울면서 돌아왔던 프리티의 모습을 생각하며 '어리게만 보이는 프리티가 이렇게 많은 수련생 앞에서 과연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프리티의 발표를 들으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조그맣고 깡마른 프리티가 완벽한 교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있었으니까요. 조그만 몸에서 어떻게 저런 우렁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적당한 순간에 질문을 던지는

무조건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는 일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습니다.

것도 그렇고, 한 명 한 명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장난스럽게 던지는 질문에 능수능란하게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꼭 몇 십년 된 교사 같았습니다. 수련생들도 그런 프리티의 수업에 즐거워했습니다.

일곱 개 조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한 조 한 조 발표할 때마다 어떤 점은 아쉽고 어떤 점은 좋았는지 바로 바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뒤로 갈수록 수련생들의 발표 실력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비록 전문 교사도 아니고, 훌륭한 교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련생들의 모습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려주고,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것ですよ.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유능한 트레이너라는 것도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느끼고, 그러면서 성장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말입니다.

디레디레 틱 호자이가 (서서히 나아질 거야)!!

수자타아카데미 교장을 맡은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800여 명과 중학생 90여 명, 그리고 유치원생 1,300여 명까지. 매일 아침 조회 때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유치원 방문 때 저를 보고 우는 유아반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을 책임져야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나같이 문제점들만 보여서 하루아침에 바뀌보려는 욕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평가에 안절부절하며 교사들을, 중학생들을, 스스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수련은 참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고 힘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나도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나아지는 것... 우리 아이들처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치원에 보내놓고 제대로 하려나, 수업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어쩌나 걱정만 했던 중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이해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는 일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했던 TTT수련은 앞으로 좀 더 체계를 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련생이 트레이너가 돼서 다시 수련생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지요. 수자타아카데미의 모든 중학생이 트레이너가 될 그날까지 TTT수련을 계속될 것입니다. 🌸

글 이세형(사니아) | 인도JTS

해외소식 _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JTS 필리핀과 다물록 시 평화 만들기 함께 해요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 때 배워야 합니다.

JTS 활동 이념입니다. 2003년 처음 민다나오 지원을 시작해서 그 동안 JTS 민다나오는 학교 건축을 통해 아이들이 제 때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런 활동에 지역정부가 JTS와 함께 살기 좋은 민다나오 마을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물록 시 입니다.

‘있을 게 많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이 가치있는 존재이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느낀다면 정부에 대해서 충을 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물록 시(Municipality of Damulog)는 JTS 센터가 위치해 있는 부키드논 주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북 코타바토(North Cotabato)주와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북 코타바토 주는 무슬림 강성 주입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다물록 시는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3년 정부군과 MILF(모로이슬람해방전선)간 총격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해 17,000여명의 주민수가 4,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총격전이 발생해왔고 2003년에는 정부군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난하고 살기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북 코타바토와 붙어 있는 오지 마을은 정부 지원이 없어 더욱 가난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았습니다.

2007년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다물록 시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존 관념 대신 총코 시장님은 군대를 거부했습니다. 그 동안 군대가 다물록 시에 있었지만 평화를 지키지 못했으니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냐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군대 대신 지역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정부가 찾아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족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주민들이 살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충을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있을 게 많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이 가치있는 존재이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느낀다면 정부에 대해서 충을 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충 대신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무슬림 지역으로 그 동안 정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했던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평화와 가난, 평화가 없으면 가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물록이 가난했던 이유는 이전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을 위해서 평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하고 발전을 통해서 평화가 더욱 견고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JTS와 만났습니다. 다물록 시, 6개 마을에 교실 14칸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JTS에서는 목재, 지붕자재, 못 등 건축자재를 대고 마을 주민들은 직접 모래 자갈을 나르고 학교 부지를 준비하였으며 다물록 시에서는 임금 없이 일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food for work를 제공하였습니다. 1개 마을에서는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TS 필리핀은 학교 건축을 통해 민다나오에 평화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학교가 없는 마을은 지역 정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가 없기 마련입니다. 선거 때만

해외소식 _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JTS에서는 다물록 시와 함께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물록 시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와 병원을 건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지 그 이후에는 잊혀지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런 지역은 정부에 대해, 외부 세계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JTS는 이런 곳에 학교를 지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마을 주민들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아닌 관심을 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서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JTS가 마을에 학교를 지으려고 할 때는 JTS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함께 하도록 해서 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번듯한 학교가 새로 생겼어도, 책, 노트, 연필을 지원해 주어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의식이 변해야 하고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쓸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JTS 민다나오에서는 마을 개발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문구류도 직접 사 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제 때에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공부 시킬

수 있게 말입니다. 아르면 바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난해서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 주민들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물록 시를 넘어서 주변으로 그 변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JTS와 다물록 시가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JTS에서는 다물록 시와 함께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물록 시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와 병원을 건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밑그림을 그리는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물록 시가 민다나오 평화 만들기에 기여하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글 송지홍 | 필리핀 J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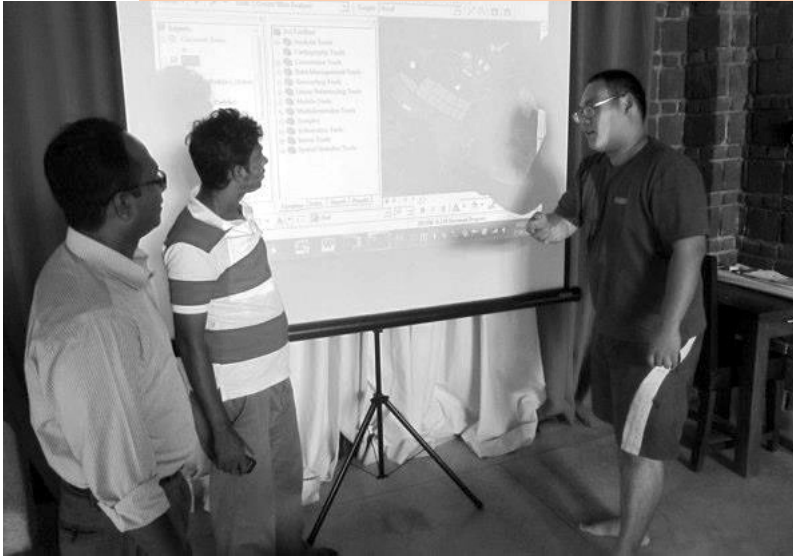
상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이 그 상대를 최선을 다하게끔 해줘요!



스리랑카란 나라에 도착한지도 한 달
하고도 반이 지났다.
생전 처음와보는 나라, 그리고 어떤
동료도 없는 “나홀로” 파견.

다른 JTS 지부들은 대부분 직접 사
업을 하고있는데 반해 나는 이곳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현지
NGO인 Sewalanka Foundat ion
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있는
곳은 스리랑카 중북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 Anuradhapu
ra 이고 이곳을 기반으로 Anuradhapu
ra, 바부니아 Vavuniya, 트링코말
리 Trincomalee 이렇게 3개 지역 9
개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해외소식 _ 야유보완, 스리랑카



현재 프로젝트는 KOICA지원으로 이뤄워지고 있으며 지역 위생시설 및 농업기반시설개,보수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지난 26년간 종교 및 종족 분쟁이 있었다. 인구의 대다수인 70%여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리족과 15%의 힌두계 타밀족, 그리고 아랍상인의 후예로 추정되는 8%가량의 이슬람계 무어인,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2009년 내전 종식이후 타 지역으로 피난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재정착하고 있으나 그들을 맞이하는 고향은 이미 타밀 반군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인프라들이 파괴된 채의 그것이었다. 특히, Vavuniya, Trincomalee의 경우 과거 타밀반군의 지역이었고 다른 곳보다 타밀족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Anuradhapura의 경우는 대부분이 싱할리

족인 지역이다. 스리랑카 내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고 다른 곳의 경우 쓰나미나 분쟁 등으로 국제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았지만 정착 이곳은 아무런 관심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생활수준이나 경제 여건이 떨어진다.

이곳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분쟁이란 것은 현재 진

행형이라는 것이다. 2009년 내전을 종식했으나 Vavuniya나 Trincomalee의 경우, 실제로 모니터링을 가보면 중무장한 수많은 군인과 경찰들을 볼수도 있다. 가끔은 시내 한복판에서도 중장갑차를 탄채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는 특수부대 병력 등을 볼수도 있다.

이런 분쟁 하에서 가장 고통에 신음하는 것은 민초들이다. 그들에겐 싱할라나 타밀이나 무슬림이나 모두 지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일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전이라는 이름하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했으며 증오하기도 했다. 분쟁, 그리고 2004년의 쓰나미로 인해 많은 NGO들의 지원이 끊어질 않았다.

그 지원가운데는 실적을 올리기위한 문지마식 지원이 많았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돈이 풀리면서 지난 8여년동안 물가는 3배정도 폭등하게 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결국 내 고정관념이고 그냥 내 편견이었으며 그들은 그냥 그들의 방식대로 일을 할 뿐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되었다.

그랬던 거 같다.

현재는 많은 NGO들이 스리랑카를 떠났거나 떠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내전 종식 이후 안정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는 나라 곳곳이 내전으로 인해 손대지 못했던 도로 건설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인도와는 분명히 다른 문화이다. 인도아대륙의 문화권이며 과거 대영제국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 어떤 곳보다 상당히 깨끗하다. 불교가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서 국민들은 불심이 무척이나 깊다.

사람들은 상당히 친절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한편으론 수줍어 한다. 다른 곳보다 영어가능인구 비율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이며 과거 대영제국의 식민지여서 그런지 어느정도 체계적인 면도 있다.

사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모니터링 업무로 인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의심을 바탕으로 깔고 모든 것을 대했던 것 같다. 제3세계이고 많은 부패가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그리고 처음에 너무 행정적인 편의에 입각하여 일을 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우기가 오는 10월전까지 이 프로젝트를 마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초조함, 불안감으로 인해 처음에 엄청나게 까탈스럽게 대했다. 의사결정시에도 무조건 내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단지 핑계로만 치부시 하였다. 한국에서와 같은 빠른 의사결정과 진행을 원했지만 이곳에서는 늘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그 기다림의 시간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결국 내 고정관념이고 그냥 내 편견이었으며 그들은 그냥 그들의 방식대로 일을 할 뿐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 프로젝트를 너무 내것으로 삼아 욕심내고 있었던 것 같다.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는 나를 보면서 내 욕심을 한번 내려 놓게 되었다.



결국 상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이
그 상대를 최선을 다하게끔 해주는 것 같다.

또, 내가 의심을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의심을 받으면서 함께 일을 하는 입장이라면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할 수 있겠는
가? 결국 상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이
그 상대를 최선을 다하게끔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을 믿기 시작하였다.

답답하지만 믿고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본부에 욕을 좀 먹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그 방법을 택했다.

어느 날 그전까지 내가 가장 의심하고 거리를
두었던 회계담당인 친구가 나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이 실수했다며 결재낸 것을 가지고 왔다.
나도 같이 크로스 체크하다가 빼먹은 부분이
었다. 그냥 덮어줬어도 내가 모르고 지나갔을
것인데 그런것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그가
주문할 때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
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전부터
그렇게 일을 해왔을 것이다. 다만, 내가 낀 색
안경으로 인해 그 모습을 못 보았을 따름인 것
이다.

얼마 전 타국에서 첫 생일을 맞이하였다. 이곳
세와랑카 아일랜드센터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다. 밥하는 할아버지, 청소하시는 아주머
니들, 그리고 직원들과 농장의 인부, 운전기사
들까지 모두 함께 축하를 해줬다. 생크림이 아
닌 설탕으로 만든 크림으로 조잡하게 데코레
이션한 생일케이크, 그리고 이쑤시개로 만든
조잡한 생일 촛불에 참 울컥했다.

축하해주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진심을 느
꼈다. 나는 이들을 의심하고 차갑게 대했건만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
던 것이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뽀뽀뽀하게
내가 엉망으로 자른 케이크를 한조각씩 사람
들에게 돌리면서 참 행복해했다.

이 곳의 삶은 늘 느리고 늘 기다림의 연속이
다. 어떤 때는 기다리기만 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란 의심이 들때도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 듯 싶다.

이곳의 순박한 스리랑카 사람들. 그리고 아름
다운 이곳 스리랑카.

지금 이곳에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하다.
people & place...

보후머 이쓰뚜시 스리랑카.(정말 고마워요, 스
리랑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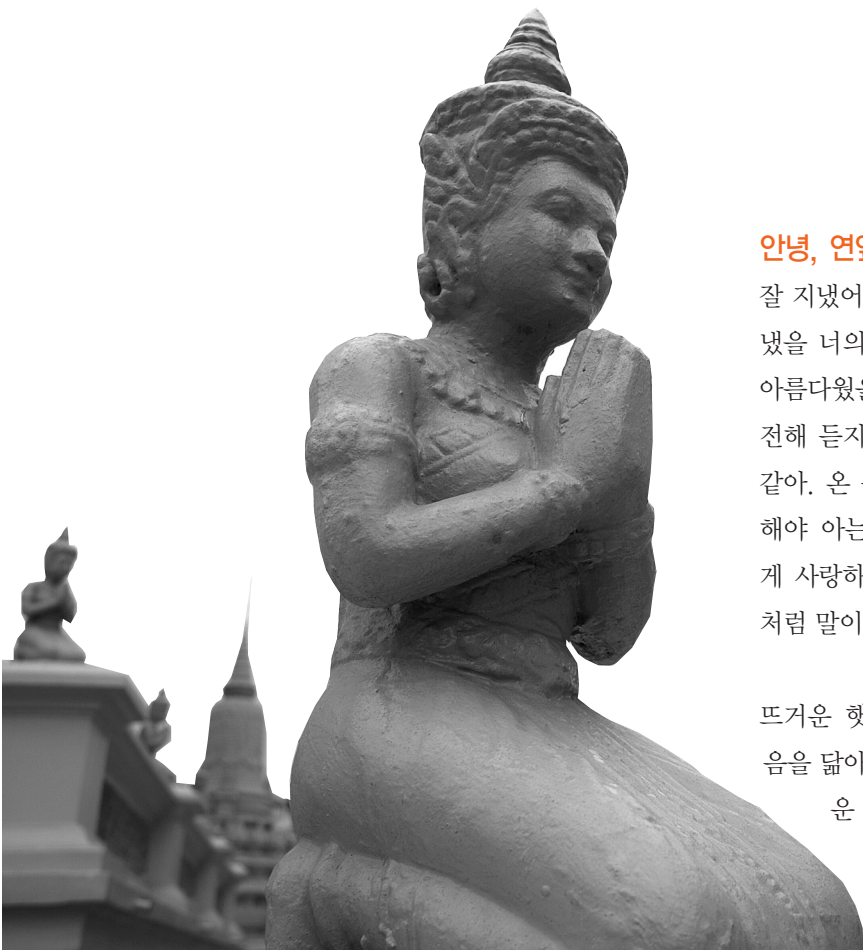
글 오성근 | 스리랑카 JTS

캄보디아로부터 온 편지 2

안녕, 연잎

잘 지냈어? 뜨거운 여름을 안아내 피워
냈을 너의 연꽃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을 테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전혀 듣지 않아도 알 수 가 있을 것만
같아. 온 몸으로 느낄 수 가 있어. '말
해야 아는 사랑이라면 병어리는 어떻
게 사랑하니?' 라는 어느 영화 속 대사
처럼 말이야.

뜨거운 햇살보다 눈부신 사람들의 마
음을 닦아가고 있는 건지 그냥 그 뜨거
운 햇살에 녹아내리고 있는 건지
여전히 아리송하기만 한데,
벌써 달력은 3장이 떨어져



해외소식 _ 쫄리음썰어, 캄보디아

나갔어.
일어나 기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출근을 하고, 회의가 끝나면, 답사를 갔다가,
교육을 받고, 자재를 준비하고, 장을 보고, 캄
보디아 말을 배우고, 계획서를 쓰고, 보고서를
쓰기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딱’ 정확
한 양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나에게 닿을 너
의 비행기 표의 준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말
이야.

나도 이제 너를 만날 준비를 할꺼야. 백일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 너의 그 발걸음이 고
마워서라도 말이지. 응. 밀린 보고서를 열심히
써 놓을게. 멀리서 온 연잎 앞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밤의 끝을 잡을 수는 없는 일 아
니겠어? 아암. 당치도 않은 소리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굳이 공항으로 마중 나
가지 않아도 되겠지? 연잎아 잠깐. 손에 쥐어
진 그 돌은 놓고 우리 대화로 얘기하자 대화
로. 법 만난 사람들끼리 이런 육신각신하는 장
면을 연출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겠는지 차분히 생각해보자고. 진정해 진
정. 후~

비록 내가 막강한 보고서를 상대하느라 몸은
캄보디아 깊은 산 속 라타나끼리에 매여 있지
만, 이 한 맘 불태워서 연잎이 가는 길을 환히
밝혀 줄 거야. 그러니 염려 및 불안 초조는 당
장 불 썬지르고 가뿐하게 캄푸치아 공화국으
로 날아오면 되겠어. 좋지? 할 수 있지?

도착 비자로 캄보디아의 입국을 법적으로 처
리하고 프놈펜 국제공항 출입국 사무소를 통
과하는 자동문을 빠져 나오자마자 프놈펜 국
제공항 주차장을 만나게 될 텐데. 너무 놀라지
말고, 그 벌어진 입 닫고 얼른 선글라스를 장
착해.

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라기 보다는 노화
와 피부트리블의 주범이자 안구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자외선을 방어해야하는 목적
과 연잎 너의 그 병 썩 표정을 알아채고 달려
들 수많은 캄보디아 산 바가지들을 피하는 목
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귀중
폼이니 늘 가까운 곳에 두어 내 몸과 같이 다
루었으면 하네.

그렇게 우리 한국 촌아이 연잎의 놀람교향곡
을 선글라스를 이용해 음소거를 걸어주었다면
찬찬히 프놈펜 국제공항을 캄보디아의 열기를
느껴봐. 후끈후끈하지? 굉장하지?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반갑다고 오라고 난리지? 캄보디아
남성분들의 환영에 화답하는 것도 한국여성으
로써 누릴 의무이자 권리겠지만, 그것이 다 너
에게서 풍겨지는 관광향을 맡고 달려드는 서
비스업 조사자분들의 영업활동이시니깐 그저
담담히 연예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심
신의 평화를 위한 최고의 길이지.

이제부터 이 열광의 도가니탕을 빠져나갈 캄
보디아 대중교통 수단을 설명해 줄게. 가볍게
듣고 일단 해 보자.

캄보디아의 대중교통의 양대 산맥은 모토와 툽툽이야. 먼저, 모토는 단어 그대로 모토사이클의 줄임말 즉, 오토바이지. 캄보디아에서는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한국의 택시마냥 잡아서 타고 다녀. 그 오토바이엔 아무런 표시도 미터기도 없지만 조금만 지나고 보면 어떤 오토바이가 영업용이고 어떤 오토바이가 개인용인지 쉽게



알 수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툽툽이는 오토바이차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어. 말이 끄는 차는? 마차!, 오토바이가 끄는 차는? 툽툽이! 어렵지 않지?

지금 설명에서처럼 캄보디아 대중교통은 오토바이에서 시작해 오토바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오토바이에게 투표권이 주어 진다면 헨리데이비슨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지도 모르겠네. 그런 만큼 언제, 어디서 오토바이가 연잎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이니깐 늘 깨어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

같은 맥락에서 툽툽이는 모터보다 108배 정도 안전한 교통수단이야. 안전의 대가로 두 배의

요금을 청구하긴 해도 우리 소중한 연잎의 만수무강과 안빈낙도를 위해서 툽툽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약속하자. 알았지?

그럼 이제 수많은 기사님들 중에 연잎의 마음에 속 드는 한 분을 골라잡아서 방긋 웃으며 원하는 목적지를 말하고 가격을 합의하면 상호간의 구두계약에 의해 원만히 거래가 성사될 텐데... 그래! 이 부분이 포인트야. 밀고 당기기. 이 밀당의 핵심은 '피지시키면 백전백승'. 아저씨들이 부르는 가격은 적정가격의 2~3배인 경우가 허다해.

그리고 캄보디아 내 프놈펜 시내를 기준으로 우리 연잎이 혼자서 아무리 멀리간다고 해도 3불 이상을 지불 할 일은 없는 거야. 그게 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격이니깐 정말 꼭 기억해두고 나머지 돈으로 캄보디아 길거리 음식이나 실컷 사먹어.

아 만약 처음 기사님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캄보디아는 넓고 연잎을 모시고 픈 기사님들은 줄을 섰으니깐 그것 또한 아무 문제가 아니지. 다음 또 다음. 오케이?

여기저기 구경하며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조금만 놀고 있어. 내가 모든 보고서를 격퇴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너에게 달려갈게. 곧 보자. ✨

글 정훈재 | 캄보디아 JTS



유치원공사를 시작하며

지금 이 곳은 라마단(이슬람 성월, 8월1일~8월29일)기간입니다.

무슬림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간동안 단식을 하며 배고픈 자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시는 것까지 금하고 있으며 행동거지 또한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자기를 돌이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곳 루북바승은 무슬림이 거의 100퍼센트인 지역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무슬림율법(샤리아)을 따라야 하고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각 동네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 1곳씩 총 5개 지역에서 유치원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와서 어리둥절하게 보냈던 첫 라마단기간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눈치껏 행동하며 나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JTS는 작년 주택복구사업에 이어 올해엔 인구 8만의 이 곳루북바송(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에 유치원과 각종 학습기자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09년의 지진피해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아 많은 유치원들이 부식진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지역 학생들은 멀리 있는 타 동네 유치원을 가던지, 아니면 교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민가에 의탁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유치원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교육시스템상 이 학생들이 나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또래 학생들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교육시설과 선생님이 준비된 유치원 지원을 약속하였고 원칙에 의거 JTS는 자재지원을 해주고 동네사람들은 로통고용(ROTONG GOYONG, 우리의 두레와 비슷한 인도네시아 전통관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관할청으로부터는 전담공무원과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주인 되니 어느 한 쪽이 일방적

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 삼자간에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루어지는군요.

지금은 각 동네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 1곳씩 총 5개 지역에서 유치원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실 12칸, 교무실 5칸, 화장실, 담장, 배수로, 수도, 전기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물론 5개 지역 또한 모두 나름의 사연이 있어 쉬운 지역 또한 없습니다. 밀림속에 있는 꾸마얀이라는 동네는 공사는 둘째치고 자재배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빠른 곳은 이미 벽체작업에 들어 간 곳도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일을 좀 더 다그치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좀 더 튼튼하고 예쁘게 지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넬모레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르바란(인도네시아 명절)이 시작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한여름 날씨에 명절이라고 들썩대니 저로서는 느낌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곳 사람들은 제 느낌과는 아랑곳 없이 명절음식과 귀향준비에 모두 들떠있네요. 아무쪼록 명절 잘 보내고 다시 모여 순조롭게 공사가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

글 임희성 | 인도네시아 JTS

국내소식 _ 함께 나누는 사랑

미주 JTS 모금캠페인 활동

- JTS Campaign to End Child Proverty

글 임금이 | 미주 JTS

미주 JTS에서는 5월 ~6월 미주지역 JTS지부와 함께
“굶주린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세요”
거리 모금캠페인을 시작 했습니다.

워싱턴 JTS지부에서는 6월 19일(일)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Ellicott City, MD 롯데 플라자앞 에서 10명이 참가하여 \$210 후
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대부분이 모금 캠페인
에 처음 참가하는 것이라 초반에는 어색해하고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접근해 캠페인
에 관해 설명을 하고 모금을 하였습니다. 모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JTS 활동에 관한 홍보를 할수 있는 기회였고 캠페인 참가자들이
각자 모금하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 알게 되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캠페인에 참가하면서 모금 안하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
들거나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모금하는 사





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어 앞으로 모금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관한 설명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모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기 싫고 주저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캠페인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기쁘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상을 보고 모금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다가갔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점점 분별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가갔다. 모금 안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니 모금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샌프란시스코 JTS지부에서는 6월 25일에 진행된 가라지세일 (garage sale, 개인이 하는 중고품 판매)에서 \$239.25의 금액이 정성껏 모아졌습니다.



가라지 세일에 오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품목들을 많이 사가셨습니다. 질이 좋고 깨끗한 물건들이 많이 모여서 인것 같아요. 물건을 도네이션해주신 모든 분들과 가라지 세일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뉴욕 JTS지부에서는 6월 24일 ~26일 맨하탄,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17명이 캠페인에 참가하여 \$2,018. 50를 모금했습니다.

뉴저지 JTS모금하는 날

셔츠를입고, 띠를 두르고, 모금함을 들고, 완벽한 무장
마음은 쭈뼛거리면서, 눈치를 보면서, 도망가려한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안녕하세요?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1만 도와 주세요.
선뜻 내어 주는 사람, \$5, \$10을 주는 사람, 미리 준비 했다가 주는 사람,
수고 한다고 격려해 주는 사람, 움추려 들었던 내 마음이 활짝 웃으면서,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신나게 외친다.

따뜻한 마음을 내어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목이 아프게 소리
친(?) 내 마음에 가슴 뿌듯함이 느껴진다. 그래, 우리는 하나야!

모금 된 금액은 모두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간단한 질병도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제 3세계 어린이들과 특히 심각한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북한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분유와 이유식, 의약품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부모도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아픔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웃음이 꽃피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신 JTS 자원봉사자님들과 후원을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거주하시거나 지인들이 JTS에 후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국JTS 은행에 직접 입금 하시거나 개인 체크(payable at JTS

America)를 써서 아래 주소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미국JTS에서 직접 후원금을 통장으로 받아서 돈을 모아서 한
 국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입금하시고 나면 전
 화 또는 메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JTS에 관심가져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JTS도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JTS 영문 웹사이트 www.jtsamerica.org
 이메일: jtsamerica.ngo@gmail.com
 미국JTS 주소: 1124 Abbott Blvd., Fort Lee, NJ 07024
 문의: (201) 224-3834, (516)734-1047
 (070)4015-5308 (한국에서 거실때)



후원금을 은행에 직접 입금
 입금:JTS America
 은행: Bank of America(NY branch)
 Routing:021 000 322
 account:483 027 057 653



국내소식 _ 함께 나누는 사랑

우리들의 100일

허애영 | 한국 JTS 부산 해운대 지부



한국 JTS 부산 해운대 지부에서는 아시아 어린이 빈곤퇴치를 위한 “필리핀 민다나오 학교짓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간의 릴레이거리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JTS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100일동안 한사람이 한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매주 금요일은 주부중심의 봉사자들, 주말인 토,일요일은 직장인 봉사자들이 맡기로 하여 역할을 분배하였지만 월, 화, 수, 목 여러사람이 다양하게 동참할 수 있게 일정을 짜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매번 오늘 모금할 사람이 있느냐 내일은 누가 하느냐는 지속적인 관심들이 있었고, 담당자인 저 또한 하루도 쉬지 않고 모금을 해야한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릴레이거리모금을 한국 JTS 전체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다가 해운대지부에서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미를 부여하며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기본 2인 이상이 모금을 해야 되는 원칙이 두 차례 지켜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두

사람이 나갔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한분이 모금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가게 된 상황이었고, 또 한번은 주말에 길이 너무 막혀서 모금시간이 끝난뒤 도착을 하여 결국 한분이 모금을 한 경우였지요. 비가 조금 오면 비를 맞아가며 했고, 비가 많이 올때 부산 센텀시티 내의 두 백화점 경계지역 지하도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정관에 봉사자들의 경우는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가 우려되었으나 모금을 일단 진행을 하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여 우산을 쓰고 하다가 결국 폭우에 30분만에 모금을 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반으로 가면서는 한 요일에 고정으로 동참하시는 분이 생겨 모금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100일째 되던 날, 처음엔 모금을 해주지 않는 분에 대해 분별심이 났는데 세 번째 모금할 땐 그 분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한 분의 소감을 들으며 모금을 통한 나눔 활동은 수혜자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금을 하다보니 내가 하는 멘트에 감동이 되어 몰입되는 경험을 했다는 분, 오늘 모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에 이미지 관리를 하게 되더라는 분.

첫 거리모금을 하면서 눈물이 솟구치며 통곡할 것 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분. 목 터져라 외치는 멘트와 다른분의 모금 모습에서 더 깊은 감동이 솟구쳤고 소리 높이며 모금하면서 중간 중간 눈물을 흘렸다는 분. 우리 모두가 감동이고 희망이었습니다.

100일동안 9,113,220원이 모였고, 중복을 제외한 순수인원 162명이 동참하였습니다.

가열되었던 공기가 식어지고 찬 표면에 닿으면 물방울이 되듯이 이제는 한때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100일! 기아없는, 문맹없는, 아픈없는 우리가 함께여는 아름다운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물방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금에 동참하여주신 모든 봉사자,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국내소식 _ 특집 JTS 사랑의 저금통

JTS, 밀가루 300톤 육로를 통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지원

글 편집부



7월 26일(화) 한국JTS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및 5개 대북지원 단체들과 함께 밀가루 300톤(1억 8천만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지원했습니다.



이날 1차로 지원된 300톤은 한국JTS의 성금으로 마련되었으며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탁아소, 유치원, 소아병 원등에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남,북한 민화협이 실무접촉을 가지고 지원대상기관, 세부분배계획서, 현장모니터링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승인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8월 7일에 JTS 박지나 대표님이 사리원시를 직접 방문하여 밀가루의 분배과정과 분배결과를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이 날, 임진각에서는 각 단체 대표들과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물자 출발에 앞서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주최단체인 민화협 김덕룡 대표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밀가루가 생존을 위협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의 밀가루’가 되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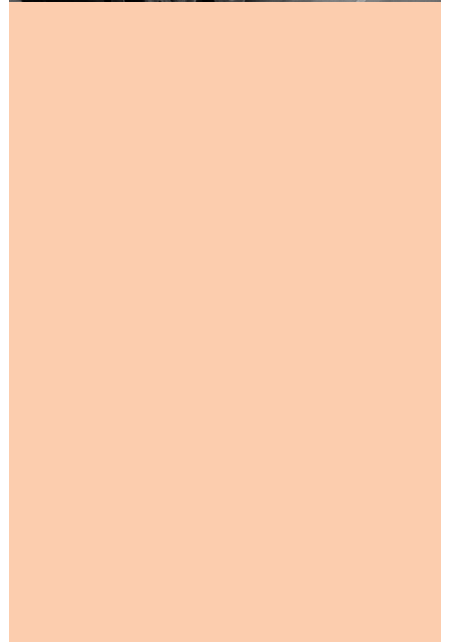
첫번째로 밀가루 지원을 시작하게 된 한국JTS 김기진 공동대표도 “관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소중한 우리들의 정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기진 대표를 포함한 6명의 방북대표단은 밀가루를 실은 25톤 트럭 12대와 함께 임진각을 출발, 육로를 통해 개성 봉동역에서 북한측에 밀가루 인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방북대표단이 개성을 방문했을 때 밀가루 지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매우 반가워하고 2차 3차에 얼마나 보낼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작년 심각한 수해피해로 인해 이번 지원지역으로 선정된 사리원시에서도 직접 나와 지원물자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식량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은 약 백만톤의 식량이 부족하여 610만명의 취약계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최근 수해피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시작된 이번 밀가루 지원은 수해와 기아로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JTS는 지난 5월 19일 북한 전역(평양, 자강도 제외) 53개 시설 12,000명 취약계층에게 두유, 이유식, 분유 등 20피트 컨테이너 31개 분량의 지원물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민간단체의 밀가루 지원이 더욱 활기를 얻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밀가루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한지민, 김제동씨와 함께 수해피해가정 긴급지원에 나섰습니다.

글 편집부

JTS는 홍보대사 한지민씨와 방송인 김제동씨와 함께 수해피해 가정 2차 지원에 나섰습니다.

JTS는 수해피해가정 1차 지원에 이어 8월 5일 강남구 구룡마을에 쌀 20KG 565포대, 경기도 광주시에 563포대, 총 1,128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200여가구 중 절반인 565가구가 수해피해를 입은 강남구 구룡마을. 김제동, 한지민씨는 5일 오전, 마을 대표 및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 전달식을 갖고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해드렸습니다.

JTS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평소 제3세계와 북한어린이 돕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한지민씨도 “막상 우리나라에서도 수해로 고통 받는 주민 분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얼마나 큰 고통이실지 감히 저로서는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이렇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달식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고, 아울러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셔서 더 좋은 일이 생기길 빈다”며 응원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달식을 마친 후, 현장에서 강남구청을 통해 피해가구마다 쌀 20kg 1포대씩이 배포되었으며, 김제동, 한지민씨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쌀을 들고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집에 방문하여 직접 쌀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쌀 20kg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뜨거운 날씨, 김제동씨는 비 오듯 내리는 땀도 아랑곳하지 않고 쌀을 전달하며 특유의 입담과 정겨움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면 언제라도 앞장서 온 한지민씨도 뜨거운 햇살



이 눈부실만큼 따뜻한 미소로 피해가구를 방문하여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을주민분들도 피해가구마다 쌀이 지원된다는 소식에 모두 마을상황실 앞에 나와 바쁜 시간을 내어 직접 쌀을 전하러 오신 김제동, 한지민씨의 따뜻한 관심에 큰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JTS는 마을주민들의 협조와 강남구청의 도움으로 565가구에 쌀을 모두 나눠드린 후 한지민, 김제동씨와 함께 역시 이번 수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광주시로 이동하여 쌀 563포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지역 역시 강이 범람하여 주택 및 농경지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광주시 부시장님께서 직접 피해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며 김제동, 한지민씨는 초월 읍사무소에 지원되는 300여포대를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하역에 동참해주셨습니다.

하역을 마친 후, 초월읍 대쌍1리를 방문하여 주택복구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쌀을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 속에서도 쌀 20kg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던 것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했던 김제동, 한지민씨의 모습처럼 이재민들을 돕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JTS는 후원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성금으로 수해피해가정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수해피해가정을 방문해보니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다시 일궈내기까지 지속적이고 따뜻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쌀 1,128포대를 전달하느라 구슬땀을 흘려주신 김제동, 한지민씨. 쌀 지원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소중한 성금을 모아주신 후원회원님께 모두 감사드리며 수해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은 전문사진작가 김재송님께서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인도 소식



I. 수자타 아카데미

1.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7월 29일 금요일, 수자타아카데미 체육대회날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뽐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달리기, 히팅게임(눈을 가리고 긴 막대기 공을 치는 게임), 높이뛰기, 멀리뛰기, 의자게임(9개의 의자에 10명이 앉는 게임), 줄넘기, 축구, 크리켓, 카바티(인도사람들이 즐겨하는 잡기놀이). 신나게 뛰고, 달리고, 구경도 하고 맛있는 특별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히팅게임. 맞추기 정말 어렵다고 소문이 났지만 1학년 학생 두 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2. 한 톨의 쌀도 모으면 큰 힘이 됩니다.

- 8월 8일~13일(주일) 동안 쌀 모으기 행사 진행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이 직접 쌀을 모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쌀 모으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학년은 한 톨, 2학년 두 톨...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한 움큼씩의 쌀을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쌀을 가져온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 덕분에 등게스와리는 오늘도 희망 한 개 추가합니다.



3. 네 꿈을 펼쳐라!

- 합창반, 무용반, 리코더반, 태권도반, 축구반 등 예체능수업 진행
유난히 행사가 많은 수자타아카데미에는 재능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갖가지 장기를 선보이는데요. 아이들의 숨은 재능을 찾기 위해 몇몇 교사들이 자진해서 예체능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퍼센트 불가촉천민들이 다니는 아자드비가분교에서는 등교시간보다 무려 30분이나 일찍 리코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5일 교사의 날 첫 공연을 앞두고 맹훈련중이라고 합니다.



4. 인도와 한국은 독립기념일이 같아요~

-8월 15일 독립기념식 행사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는 독립기념식 행사. 일주일 전부터 전교생이 국가를 연습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줄을 맞췄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과 교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의젓한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입니다.



5.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8월 9일 수요일, 제 5회 장학금 지원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불우학생 장학금 지원이 벌써 5회를 맞았습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중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장애인 부모를 둔 학생 총 스무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물품으로는 쌀 10~12킬로그램, 달(인도인이 즐겨먹는 음식 재료) 3킬로그램, 오일 2병입니다. 한 달에 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이지만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II. 지바카 병원

1. 심각한 저체중 상태인 만코시힐 마을의 '쁘라카쉬' 아기가 지원한 분유를 먹고 있다.

지바카 병원은 동게스와리 지역 내 5세 미만의 심각한 저체중아 82명에게 영양식 (영유아에게는 분유와 이유식을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1인 1달 기준 인도 콩 4Kg, 겨자유 1리터, 종합 비타민 시럽 1병)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네 차례의 지원을 통하여 이 중 20명이 영양을 회복해서 저체중상태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다.

필리핀 소식



1. 다물록 프로젝트 회의

다물록 시는 JTS 센터가 위치해 있는 부키드논 주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정부와 JTS의 긴밀한 협조로 발루드 외 5개 마을에 14칸 교실이 건축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2011년 다물록 시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와 병원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8월까지 3번째 회의를 진행하였고 9월에 4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금은 계획과 준비단계이고 지역정부, 보건부, 교육청, JTS의 협력으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물록 시가 민다나오 평화 만들기에 기여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2. 학교 건축

이에 7월 5일부터 6일까지 다물록 지역의 학교 건축 현장에 건축 자재 배송과 레이아웃 작업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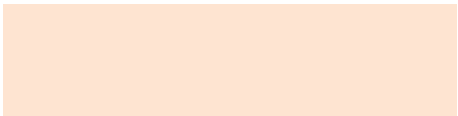
2개의 큰 보트를 이용하여 7월 5일에는 발라, 6일에는 키타스와 발라에 하드웨어를 배송하였고, 레이아웃을 위한 학교 부지 평탄화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또한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아구산 델 수르 지역의 학교 건축 현장에 다녀왔다.

지역 정부의 트럭을 이용해 건축자재와 음식을 배송하였다. 마을은 레이아웃을 위한 부지 평탄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지역 정부와 마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교실이 건축 중이고 올해 안에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상상해 봅니다.



3. 다물록 지역 교사 미팅

JTS의 지원으로 학교가 지어진 후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물록 지역의 미까실리, 발루드, 파곰풍, 블루안, 사라와곤, 키다마 총 6개 학교의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8월 5일 다물록 시장님택에 모여 시골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 교사 워크샵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날 6개 학교 총 20명의 교사 중 16명이 참석하여 정성껏 차려진 한국식 요리와 필리핀식 요리를 함께 먹으면서 다물록 시장과 이원주 대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있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런 만남을 통해 마을에서, 학교에서 더 열심히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4. 교육지원

2011년 6월 24일부터 시작하여 8월 10일까지 약 두 달여 가장 문구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정성 어린 후원금으로 총 16개 학교 1,373명의 학생에게 149,925페소 (3,748,12원) 상당의 연필, 공책, 지우개 등을 지원하였다. 대부분의 학교가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문구류 박스를 학교까지 실어 나르는 일은 마을주민과 학교선생님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말과 배 같은 다양한 운송수단이 동원되었고 주는 이와 받는 이가 모두 행복해지는 자리가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수줍은 미소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정기후원자 명단은 지면할애상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2011년 6월1일-2011년 7월31일

문의전화 02-587-8995

결 핵 퇴 치

강동우 P0058510
강무치 P0058663
강지웅 P0058526
강지윤 P0058529
곽주영 P0058373
금묵 P0058190
김경숙 P0058041
김광식 P0008339
김덕화 P0023376
김성은 P0058302
김순옥 P0033932
김영득 P0058340
김은숙 P0048130
류연순 P0057637
류정옥 P0058284
윤석 P0057791
문현숙 P0047596
박정민 P0016847
박정서 P0059063
박진규 P0044706
서양숙 P0051001
손해식 P0059207
송신화 P0056021
송영규 P0058030
신석봉 P0053755
신숙영 P0014261
신연지 P0057551
안상민 P0057623
양지영 P0058775
양화영 P0058086
엄윤경 P0056679
이경숙 P0052085
이보영 P0058024
이상식 P0057698
이승영 P0053877
이승은 P0058509
이영연 P0058042
이윤규 P0057313
이준섭 P0058319
이진영 P0047605
임명재 P0058213
정경숙 P0057918
정금순 P0058230
정미연 P0052991
정재현 P0053201
정재현 P0058468
정훈교 P0057910
최동낙 P0058270

긴 급 구 호

권해진 P0059677
박윤미 P0021231
백은하 P0054808
안복순 P0058001
이원형 P0049303
이유진 P0057353
이주형 P0056268
조이현 P0058654
조일석 P0022223
황현숙 P0053770

인도및기타후원

2011청소년여름캠프 P0059644
강경숙 P0057390
강남희 P0057306
강대웅 P0058431
강동우 P0058510
강무치 P0058663
강철화 P0057612
강소연 P0056244
강영숙 P0058467
강지예 P0021248
강지웅 P0058526
강지윤 P0058529
강지혜 P0057600
공미연 P0058492
공성희 P0058101
구도휘 P0058306
구민경 P0058770
권군자 P0011647
권남우 P0057403
권환상 P0057616
권윤경 P0058960
금묵 P0058190
기현주 P0057797
김경자 P0057299
김광오 P0037402
김광용 P0046883
김기현 P0058420
김남익 P0057075
김대인 P0058427
김덕영 P0057247

김란 P0059181
김마수 P0008396
김미정 P0056442
김미향 P0057793
김민경 P0058212
김민주 P0039375
김병규 P0057525
김분순 P0057193
김상연 P0058797
김상철 P0039585
김상희 P0058477
김석연 P0057524
김성은 P0058302
김성혜 P0057790
김세연 P0057387
김소옥 P0058741
김소정 P0003562
김소희 P0058310
김순남 P0049898
김순재(이무성) P0049921
김신혜 P0052881
김아사 P0041147
김연금 P0049403
김연순 P0058247
김영돈 P0058426
김영옥 P0057103
김영진 P0057422
김용포 P0056935
김원근 P0057450
김윤득 P0051256
김은숙 P0048130
김은주 P0056240
김인희 P0042027
김재식 P0058837
김재호 P0057448
김정아 P0057400
김정윤 P0059398
김정태 P0058231
김준우 P0058469
김준선 P0058022
김찬휘 P0058324
김채순 P0058051
김태원 P0057555
김태자 P0052871
김관균 P0058944
김현정 P0046906
김형광 P0057915
김홍숙 P0057730

남경순 P0058772
남미현 P0057772
남승욱 P0057428
라선희 P0027946
류연주 P0057183
류영순 P0057637
류장욱 P0058284
류종익 P0057770
류준하 P0029963
맹주원 P0054090
문세희 P0057386
문용석 P0057791
문원보 P0014185
민지환 P0057598
박가영 P0058503
박명주 P0005542
박미라 P0058295
박미연 P0058009
박민정 P0059033
박복금 P0050741
박성진 P0037253
박연숙 P0050664
박정민 P0016847
박정서 P0059063
박정숙 P0045242
박정자 P0058037
박정희 P0046775
박종길 P0059288
박종배 P0057398
박중현 P0025963
박진희 P0057557
박찬규 P0044706
박창목 P0026143
박현주 P0046939
박혜정 P0049906
배세복 P0057108
백유미 P0058504
서동민 P0058535
서양순 P0058211
서옥희 P0004896
서지혜 P0057774
손은주 P0042904
손해정 P0057582
손호영 P0058771
송병희 P0057296
송사임 P0058460
송선화 P0056021
송영규 P0058030
신가식 P0058666
신성숙 P0055214
신연지 P0057551
신현자 P0055954
심상희 P0058019
심유현 P0002366
안소연 P0037065
안향미 P0058288
안효원 P0058209
양지영 P0058775
양태섭 P0058286
양혜진 P0058045
양화영 P0058086
양희철 P0057917
양희철 P0057922
엄윤경 P0056679
엄익열 P0058330
여승훈 P0057771
염승훈 P0048997
오갑진 P0057073
오두환 P0059209
오병철 P0058006
오현주 P0040149
오혜린 P0057438
우연실 P0058774
유경숙 P0058254
유병일 P0057425
유정진 P0057828
유진선 P0057829
윤명숙 P0058456
윤향순 P0058222
윤향자 P0057645
이경옥 P0056236
이관수 P0058836
이권수 P0057328
이도윤 P0051727
이명숙 P0024897
이명희 P0058021
이미영 P0039797
이민애 P0059195
이병갑 P0057649
이상식 P0057698
이세중 P0057227
이순영 P0053877
이순희 P0040324
이승연 P0058223
이승은 P0058509
이애란 P0057304
이양수 P0058011
이영연 P0058042
이영미 P0043247
이원석 P0058015
이육주 P0058419
이윤규 P0057313
이은교 P0057801
이은실 P0056996
이은희 P0049920
이인경 P0058226
이인화 P0054603
이준순 P0058459
이주연 P0056682
이준섭 P0058319
이지연 P0029716
이지원 P0056923
이진영 P0047605
이진희 P0058953
이창석 P0059066
이창호 P0057710
이홍석 P0058961
임난희 P0057764
임덕연 P0057307
임선영 P0056566
임명재 P0058213
임혜진 P0043447
장광철 P0046790
장노현 P0058280
장수진 P0057647
장희경 P0058342
정경진 P0056908
정금순 P0058230
장난순 P0058281
장다희 P0058531
정미연 P0052991
정백기 P0057732
정성교 P0057190
정소영 P0057301
정순례 P0005087
정순호 P0058318
정연자 P0053201
정원선 P0048082
정인희 P0058012
정주택 P0057208
정지우 P0057642
정진화 P0054592
정필연 P0002655
조경삼 P0057769
조경숙 P0059562
조경현 P0058285
조동숙 P0057423

조문성	P0039600	필리핀후원	정승혜	P0057303	
조수빈	P0051489	강동우	P0058510	정우인	P0055409
조원진	P0052181	강무치	P0058663	지재은	P0058282
조원택	P0059191	강지예	P0021248	차진희	P0032429
조은욱	P0056366	강지웅	P0058526	최동낙	P0058270
조은주	P0043936	강지윤	P0058529	최영숙	P0054247
조재영	P0051490	금묵	P0058190	한동섭	P0056250
조지혜	P0058008	김란	P0059181	한이경	P0051868
조형래	P0057197	김성은	P0058302	함민희	P0044382
조혜수	P0057072	김수혁	P0058430	허향미	P0046221
주진모	P0055592	김영도	P0055369	홍한기	P0044456
지민선	P0020326	김영돈	P0058426		
차수민	P0058665	김정란	P0042632	인도도자보전	
채종수	P0058049	김태원	P0057555	강동우	P0058510
최기원	P0058458	김해경	P0050296	강무치	P0058663
최대성	P0004439	나유경	P0049045	강지웅	P0058526
최동낙	P0058270	류영순	P0057637	강지윤	P0058529
최범균	P0058418	류장욱	P0058284	곽주영	P0058373
최봉근	P0058184	문용석	P0057791	금묵	P0058190
최시원	P0056230	박신우	P0057310	김경숙	P0058041
최영란	P0058304	박연숙	P0050664	김광식	P0008339
최영숙	P0057914	박정민	P0016847	김덕화	P0023376
최윤정	P0058327	박정서	P0059063	김성은	P0058302
최인선	P0057724	박종배	P0057398	김순욱	P0033932
최재귀	P0042522	박종현	P0025963	김영득	P0058340
최정림	P0056538	박찬규	P0044706	김은숙	P0048130
최정은	P0058234	배세복	P0057108	류영순	P0057637
최창숙	P0051362	송경미	P0058746	류장욱	P0058284
최희	P0057221	송선화	P0056021	문용석	P0057791
탁수연	P0059185	송영규	P0058030	문현숙	P0047596
한관수	P0058245	신금옥	P0056221	박정민	P0016847
한도영	P0054880	신연지	P0057551	박정서	P0059063
한미숙	P0039838	양지영	P0058775	박찬규	P0044706
함옥란	P0058102	엄석용	P0053831	서양숙	P0051001
행복전하기(손순혜)		엄윤경	P0056679	손해시	P0059207
	P0058048	연제원	P0049178	송선화	P0056021
허명	P0057531	오해경	P0059208	송영규	P0058030
허무룡	P0053316	이경민	P0058017	신석봉	P0053755
허심	P0057220	이상식	P0057698	신숙영	P0014261
홍난영	P0022269	이성중	P0053092	신연지	P0057551
홍상선	P0016591	이승은	P0058509	안상민	P0057623
홍선영	P0022268	이애란	P0057304	양지영	P0058775
홍승주	P0053997	이영연	P0058042	양화영	P0058086
홍용기	P0052700	이윤규	P0057313	엄윤경	P0056679
홍한기	P0044456	이은교	P0057801	이경숙	P0052085
황보명숙	P0056644	이인화	P0054603	이보영	P0058024
황신현	P0058490	이준석	P0058319	이상식	P0057698
황영순	P0058506	임영재	P0058213	이순영	P0053877
		정금순	P0058230	이승은	P0058509

이영연	P0058042	권남우	P0057403	김인준	P0052410
이윤규	P0057313	권미지	P0058328	김임양	P0014421
이준섭	P0058319	권지란(유아인)		김재명	P0055864
이진영	P0047605		P0055752	김재형	P0058043
임영재	P0058213	권지혁	P0059257	김재호	P0057448
정경숙	P0057918	금묵	P0058190	김정윤	P0059398
정금순	P0058230	기현주	P0057797	김준우	P0058469
정미연	P0052991	김가영	P0058505	김준호	P0058016
정연자	P0053201	김강훈	P0059754	김준희	P0057204
정재현	P0058468	김광용	P0046883	김중선	P0058022
정훈교	P0057910	김광호	P0042658	김지형	P0058329
최동낙	P0058270	김규진	P0058277	김지훈	P0058500
최명옥	P0029583	김민익	P0057075	김채원	P0058316
최은정	P0037305	김덕영	P0057247	김철수	P0057821
한동섭	P0056250	김덕화	P0023376	김철윤	P0058018
홍한기	P0044456	김동영	P0039602	김태원	P0057555
		김동원	P0057395	김판균	P0058944
북한결연		김동준	P0057451	김평재	P0059571
(주)내츄럴파크		김미수	P0008396	김하나	P0057300
		S0057534		김향순	P0006882
강경숙	P0057390	김민경	P0058212	김현정	P0046906
강대석	P0056602	김민경	P0057385	김혜경	P0050296
강대웅	P0058431	김민성	P0057848	김혜숙	P0058480
강동우	P0058510	김민성	P0058964	김호선	P0058756
강동주	P0056963	김병규	P0057525	김효례	P0056614
강무치	P0058663	김석연	P0057524	김효순	P0058769
강복희	P0057773	김신아	P0056052	김훈	P0058044
강석현	P0056834	김신영	P0058934	김희영	P0058507
강순욱	P0059030	김선옥	P0039708	김희정	P0058036
강윤정	P0057787	김성은	P0058302	나경원	P0059351
강은정	P0058287	김소정	P0003562	나경주	P0059349
강지웅	P0058526	김소희	P0058310	나승연	P0050925
강지윤	P0058529	김승림	P0048578	나용주	P0045906
강지혜	P0057600	김순남	P0049898	나종용	P0059350
강태훈	P0057788	김순옥	P0033932	나희원	P0059352
강호숙	P0034877	김연희	P0057615	남경순	P0058772
강희선	P0002673	김영돈	P0058426	남미현	P0057772
고경수	P0057342	김영민	P0041652	남승욱	P0057428
고경희	P0042512	김영희	P0056225	라선희	P0027946
고윤경	P0057718	김옥연	P0058289	류영순	P0057637
고은경	P0058014	김용포	P0056935	류장욱	P0058284
공미란	P0058492	김원근	P0057450	류재훈	P0057800
공성희	P0058101	김유정	P0030739	목인숙	P0053793
공윤경	P0056872	김윤식	P0054082	문덕수	P0059045
곽봉수	P0055849	김윤희	P0059194	문연정	P0057700
곽재술	P0055627	김은숙	P0048130	문용석	P0057791
구홍두	P0056473	김은주	P0056240	문현숙	P0047596
권기영	P0057452	김인경	P0056124	민숙기	P0046387
권기원	P0057768	김인숙	P0055910	박기태	P0057219

박만수	P0059353	송경일	P0038583	윤길호	P0058347	이일선	P0053040	정연윤	P0028171	최혜진	P0041672
박민선	P0056434	송사임	P0058460	윤남숙	P0046691	이재현	P0058224	정연자	P0053201	최희	P0057221
박순환	P0004262	송선화	P0056021	윤영숙	P0058456	이정민	P0058252	정영호	P0058682	최희	P0057221
박신우	P0057310	송상숙	P0057650	윤선아	P0057433	이정원	P0058621	정은미	P0048623	최희석	P0058029
박양식	P0043637	송영규	P0058030	윤영희	P0003343	이종숙	P0040850	정재용	P0057202	최희정	P0057374
박연숙	P0050664	송은호	P0002339	윤원식	P0058326	이종순	P0058459	정재현	P0058468	추송미	P0057556
박영수	P0035219	신금옥	P0056221	윤향순	P0058222	이주연	P0056682	정지윤	P0057302	탁수진	P0059184
박영호	P0058039	신기식	P0058666	윤현옥	P0059189	이주은	P0058266	정지혜	P0058752	탁윤태	P0059183
박우석	P0057522	신미옥	P0012040	윤혜영	P0059277	이주은	P0058372	정태화	P0053797	하재춘	P0026582
박정덕	P0057549	신연지	P0057551	이각우	P0057951	이준섭	P0058319	정훈교	P0057910	하정화	P0057725
박정민	P0016847	신유빈	P0055349	이경옥	P0056236	이지원	P0056923	제술지	P0058566	하준호	P0058927
박정서	P0059063	신현자	P0055954	이경희	P0008484	이지화	P0021272	조경삼	P0057769	하현봉	P0057727
박종배	P0057398	심가현	P0043080	이광대	P0023093	이진영	P0047605	조계선	P0025260	한도영	P0054880
박종선	P0059178	안삼준	P0057621	이규빈	P0056832	이진호	P0057442	조아라	P0045863	한동성	P0056250
박종휘	P0059179	안영미	P0057242	이도윤	P0051727	이창석	P0059066	조영자	P0056491	한미경	P0053753
박지은	P0050328	안우근	P0058763	이명선	P0056924	이춘식	P0058479	조용수	P0057697	한선철	P0057630
박진희	P0057557	안지혜	P0058026	이명자	P0057789	이필래	P0057651	조윤성	P0058023	한아름	P0046310
박준태	P0058652	안효원	P0058209	이민애	P0059195	이향선	P0057031	조자선	P0057816	한희진	P0009577
박현주	P0046939	양영순	P0058005	이봉근	P0058653	이혜경	P0058225	조태현	P0052697	함옥란	P0058102
박형숙	P0057636	양영희	P0021379	이상식	P0057698	이홍숙	P0058246	조현주	P0058661	허대영	P0058028
박혜정	P0049906	양지영	P0058775	이상훈	P0058963	임선영	P0056566	조형래	P0057197	허심	P0057220
박환옥	P0059343	양현봉	P0048884	이선영	P0055844	임성철	P0058501	주진모	P0055592	하윤휘	P0056612
방수호	P0058751	양혜진	P0058045	이세경	P0058035	임소현	P0058761	지현영	P0058962	홍기태	P0057796
배상정	P0058034	양화영	P0058086	이소령	P0052149	임소희	P0058760	진성근	P0007725	홍남영	P0022269
배지현	P0057792	엄윤경	P0056679	이수연	P0056859	임영재	P0058213	차수빈	P0058665	홍상선	P0016591
백국옥	P0012378	엄익열	P0058330	이수진	P0058428	임준순	P0042368	차재엽	P0058210	홍선영	P0022268
백금규	P0057532	여미영	P0057857	이순희	P0040324	임진강	P0048061	채은준	P0058447	홍승주	P0053997
백유미	P0058504	여승준	P0021373	이승덕	P0058296	임혜정	P0017356	천고길	P0057634	홍영걸	P0058007
변정혜	P0056191	연재원	P0049178	이승연	P0058223	임혜진	P0043447	최동택	P0058270	홍한기	P0044456
변철호	P0059564	오갑진	P0057073	이승은	P0058509	장미	P0043589	최미희	P0050020	황보영숙	P0056644
삼총사	P0057554	오경수	P0014215	이승호	P0058622	장병천	P0058244	최봉근	P0058184	황신현	P0058490
서동민	P0058535	오달순	P0036460	이신열	P0053491	장수진	P0057647	최상수	P0057795	황아영	P0055861
서승희	P0057305	오미옥	P0041942	이애란	P0057304	장우영	P0058243	최서원	P0058104	황영순	P0058506
서승희	P0057305	오숙진	P0058317	이애자	P0059258	장은주	P0058031	최선영	P0057814	황재희	P0058423
서양순	P0058211	오영근	P0056597	이연명	P0058228	장이순	P0039256	최소옥	P0052979	황혜림	P0045962
서영주	P0058033	오윤아	P0058047	이연옥	P0059060	장혜주	P0049489	최영덕	P0036307	황홍순	P0057246
서정만	P0058457	오을미	P0049052	이영연	P0058042	장희경	P0058342	최영동	P0058683		
서정의	P0058667	왕선희	P0015097	이영옥	P0059211	전경옥	P0057858	최영란	P0058304		
서지혜	P0057774	우원석	P0059206	이원우	P0001903	전승진	P0018309	최영숙	P0057914		
서현미	P0057913	원명아	P0058020	이원옥	P0058092	전지혜	P0044488	최원석	P0042348		
석미숙	P0058323	유관희	P0058413	이유빈	P0057226	정금춘	P0034136	최원탁	P0033047		
성복현	P0047989	유광현	P0057799	이윤규	P0057313	정금순	P0058230	최윤익	P0003599		
성순경	P0056525	유병일	P0057425	이은경	P0059573	정대봉	P0058748	최윤정	P0057397		
성외경	P0039576	유정열	P0021283	이은실	P0058382	정미연	P0052991	최윤정	P0058327		
손명희	P0040127	유진우	P0045460	이은애	P0058038	정미연	P0052991	최재연	P0041828		
손윤희	P0037674	유진은	P0058740	이은옥	P0057033	정병희	P0057553	최정림	P0056538		
손정민	P0058502	유화영	P0057798	이은주	P0058392	정선우	P0058753	최정원	P0042183		
손혜정	P0057582	유희경	P0058348	이은희	P0049920	정순례	P0005087	최혁근	P0058040		
송경미	P0058746	유희정	P0039639	이인화	P0054603	정연길	P0058003	최현숙	P0043406		

특별후원금

2011년 6월1일-2011년 7월31일

결 핵 퇴 치	나경주 100,000	15,000,000	
곽주영 100,000	나승연 50,000	이금봉 10,000	
서양숙 20,000	나중웅 100,000	이순희 100,000	
	나희원 100,000	이승덕 10,000	
국 내 기 금 구 호	두주화-백일기도회향	이시연 100,000	
김미선 3,190		이연옥 1,000,000	
박미희기연예진 25,000	명신영 100,000	이영미 500,000	
박윤미 10,000	모진이재명영가왕생극락	이옥현 100,000	
백은하 30,000	발원 1,000,000	이유미 100,000	
신혜경 100,000	무비 300,000	이윤선 100,000	
안복순 100,000	문정신 500,000	이윤희 300,000	
윤태순 20,000	박경미 200,000	이은주 100,000	
이동용 100,000	박노옥 80,000	이은희 500,000	
이원형 10,000	박영자 20,000	이일선 100,000	
이유진 41,000	박영자 20,000	이정민 500,000	
이주형 10,000	박영자 20,000	이정숙 10,000	
이향숙 30,000	박영준 1,000,000	이종숙 100,000	
조진용 110,000	박인순 100,000	이주은 18,000	
황현숙 50,000	박창환 100,000	이주은 200,000	
	박지은 41,300	이희희 60,000	
북 한 결 연	백국옥 10,000	이태경 30,000	
강순옥 500,000	변철호 50,000	이태신 500,000	
고형숙영가 200,000	서예원 50,000	이향숙 33,000	
공월란 100,000	서장만 110,000	임준순 100,000	
곽노진 100,000	서장만 50,000	장성호 50,000	
구영희 1,000,000	성복현 300,000	장수연 30,000	
권지혁 50,000	손은희 50,000	전태수 53,000	
권혁만 100,000	손진길 200,000	정교필 50,000	
김경미 200,000	송선옥 99,760	정연길 100,000	
김경숙 85,600	송은호 100,000	정연운 100,000	
김광자 20,000	시즈모이숙조경기왕생극	정영호 4,480	
김광호 210,000	락발원 300,000	정진구 130,000	
김낙춘 10,000	신영찬 80,000	정태화 12,000	
김남순 50,000	신자은 60,000	조미숙 200,000	
김동원 100,000	심율택 100,000	조아라 3,000,000	
김미정 50,000	안지혜 10,000	주선자 58,000	
김민정 100,000	양명숙 50,000	지현영 5,000	
김범중 30,000	양미애 300,000	진성곤 100,000	
김선경 50,000	양현봉 200,000	최근대 100,000	
김선정 30,000	여승은 50,000	최덕선 70,000	
김선호 60,000	여승진 20,000	최병일 500,000	
김성남 250,000	여승진 50,000	최병화 72,000	
김성수 100,000	여승진 75,000	최순희 120,000	
김영길 100,000	여인옥 30,000	최원택 20,000	
김완희 50,000	오말순 200,000	최운억 1,000,000	
김유정 100,000	오유미 50,000	최재연 100,000	
김유진 100,000	오주석 100,000	최재옥 50,000	
김윤태 150,000	오철 100,000	최정원 100,000	
김은숙 200,000	왕선희 100,000	최정자 100,000	
김인환 50,000	우원석 50,000	최혁근 300,000	
김일양 1,000,000	유은식 55,530	최희석 1,000,000	
김정래 40,000	유한택 150,000	하애란 500,000	
김정숙 1,000,000	유현주 300,000	하은이 50,000	
김정윤 800,000	유희경 3,000,000	한아름 50,000	
김진환 1,000,000	윤금자 50,000	함옥란 50,000	
김철수 30,000	윤남숙 30,000	허대영 20,000	
김춘생 100,000	윤선아 300,000	허항미 2,000,000	
김태정 50,000	윤영희 23,000	홍동욱 30,000	
김평재 30,000	윤화자 10,000	홍민지 100,000	
김현채 21,670	윤화자 50,000	홍두현 30,000	
김혜영 50,000	윤효진 200,000	황해림 100,000	
김홍일 300,000	이기연 200,000		
나경원 100,000	이근복영가	인 도 모 자 보 건	
		김일화 30,000	

문의전화 02-587-8995

김주일 10,000	손주김남우백일기념 57,000	
김혜진 6,000		100,000
김효진 10,000	시드니정도법회	해피빈 844,400
박관열 30,000		허영미 1,000,000
백경임 61,160	신한카드 40,257	홍용기 438,300
서예원 50,000	안양법당책수익금	
손연화 700,000		60,300
양문규 469,990	안양순회별회모금	
최우진 3,000,000		65,000
최춘옥 100,000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	24,600
	여승은 20,000	
	여승은 25,000	
인 도 및 기 타 후 원	여정화 281,500	
2011청소년여름캠프	오두환 10,000	
87차일상에서깨어있기	오세욱 137,000	
	울산라이온스	
구도휘 20,000		1,000,000
권군자 50,000	울산아간반수행맛보기팀	
권윤경 50,000		50,000
권재영 74,680	유경숙 100,000	
김경미 90,000	이경애 500,000	
김광제 68,850	이동현 50,000	
김덕정 100,000	이명숙 10,000	
김무영 230,000	이명자 100,000	
김미옥 400,000	이미영 51,230	
김미정 50,000	이순이 1,000,000	
김상연 1,000,000	이성협 30,000	
김선호 30,000	이정민 500,000	
김수연 60,000	이주형 100,000	
김숙찬 100,000	이진희 1,000,000	
김순옥 100,000	이창호 20,000	
김승은 30,000	이태권 100,000	
김애자 30,000	이홍석 10,000	
김연금 200,000	이희숙 100,000	
김영옥 10,000	장수연 30,000	
김재령 286,800	장진영 130,000	
김정대 100,000	장수진 50,000	
김정란 100,000	정원선 1,600,000	
김정윤 500,000	정정희 50,000	
남편김정용남생신축하	정명화 90,000	
	정필원 200,000	
50,000	조경숙 10,000	
대구법당재비	조모양준월기일	
	기팀 106,000	
2,100,000	류현복 19,000	
대구청년정도회수행맛보	문원보 100,000	
	민지환 60,000	
기팀 106,000	박미라 20,000	
류현복 19,000	박영화 200,000	
문원보 100,000	박정순 100,000	
민지환 60,000	박정희 100,000	
박미라 20,000	박창욱 50,000	
박영화 200,000	박해숙 101,000	
박정순 100,000	백선숙 50,000	
박정희 100,000	백리잉카 240,000	
박창욱 50,000	서복화 30,000	
박해숙 101,000	서옥희 30,000	
백선숙 50,000	석성순 200,000	
백리잉카 240,000	손동선 100,000	
서복화 30,000	손양완 200,000	
서옥희 30,000	손원지 30,000	
석성순 200,000	손은주 1,000,000	
손동선 100,000		57,000
손양완 200,000		844,400
손원지 30,000		1,000,000
손은주 1,000,000		438,300
	필 리 핀 후 원	
	김정란 100,000	
	서예원 30,000	
	오혜경 10,000	
	이규초 200,000	
	지재은 10,000	
	허항미 200,000	
	미 국 후 원 금 7 월	
	김택수 \$1,200	
	최영태, 김성순 \$100	
	위싱턴정도회 \$151	
	박희목 \$100	
	Kevin Fewell \$120	
	Freud Poe Park \$70	
	Lauren Carre \$50	
	Hui Ratliff \$30	
	Yam Yam Ice Cream \$80	
	Jung S Kang(이승은) \$100	
	Gina Ryu \$100	
	Sook H kim \$30	
	박상대 \$200	
	정상희 \$220	
	하일숙 \$30	
	이익경 \$100	
	이귀범 \$100	
	익명 \$160	
	김대현 \$30	
	최경숙 \$60	
	최만성 \$20	
	도미정 \$50	
	백은영 \$300	
	배영준 \$80	
	임금이 \$50	
	위싱턴정도회모금کمپ페인 \$260 북한결연	
	Sook H Park \$100 북한결연	
	Chung Suk Chun \$9,578	
	\$100 북한결연	
	윤미선 \$10 북한결연	
	미 국 옥수수보내기	
	LA \$20,642	
	NY \$9,578	
	WA \$6,340	
	IL \$2,430	
	FL \$610	
	Vancouver \$160	
	Austine \$100	
	MO \$100	
	GA \$180	
	KY \$50	
	정도법당중앙사무처 200,000	
	지민원 100,000	
	최기원 1,000,000	
	최대성 100,000	
	최정숙 25,000	
	최창숙 300,000	
	포항경전반 30,000	
	한경이 300,000	
	한보현 50,000	
	함옥란 50,000	
	해운대불강좌사진감보시	

나눔저금통 현황

2011년 06월 01일 ~ 2011년 07월 31일

▶ 광주

이흥식(여수) 25,640 정희석(여수) 3,300

▶ 대구

강나영 71,850 고아농협 7,100 고아농협학곡지점 14,560 고진영 20,690 구분원 33,850 구영희 23,870 기민경 14,060 김나은, 김민지 19,100 김민성 20,400 김옥자 22,670 김위숙 18,400 김재원 25,140 김주용 20,400 김주용 30,350 김지철 50,140 김현식 68,230 나영현 25,960 무명 13,010 무명 21,410 무명 31,510 무명 30,610 무명 36,810 박승희, 박주희 27,130 박영기 18,030 박임숙 13,650 파리비게트록렌시장점 7,280 파리비게트사월역점 57,810 신라성 45,110 윤갑숙 50,520 윤경화 28,840 윤성원 30,140 윤진욱 40,690 이마트마일리지 3,062 이민혁 4,770 이상윤 22,070 이승연 34,630 이재민 40,710 이재용 71,220 이정민(구영란) 34,320 이준혁 3,430 이하석 13,080 임미통달 60,510 임금실 44,460 임금실 50,100 임은숙2개 94,330 전병찬 19,100 전병찬2개 35,740 전재화 21,100 최중엽 24,170 콩나물국밥집 10,050 프라임마트 20,350 하경희 27,270 허은영 17,650 황순영 18,700

▶ 대전

구남정 18,350 김형수 66,210 농협청양군청 20,410 만공성명화 52,180 무명 6,800 무명 6,570 박종금 26,120 손호영 16,190 신재한 70,920 양승중 13,370 오색캐네타 72,570 이가선 41,680 이봉길 21,460 이치상 24,400 장우상 20,130 최희연 22,750 하미숙 23,130 하재남 107,180

▶ 동래

강민정, 강경희 33,400 김기태 20,170 류진수, 김주자 44,170 무명 17,360 무명 33,680 무명 25,750 무명 17,495 무명 15,400 문선윤 16,080 배은영 30,380 사직여중 37,920 서현숙 32,800 손숙희 18,820 송현주 4,010 심학순 19,230 예원초등학교 66,800 이동찬 24,370 이수민 16,250 전은애 76,340 정서희, 정서윤 17,860 조순이 193,350 조현중 31,200 차연자 39,750 최준환, 진희 13,190 하지원 18,990 현대모비스 15,910 현대모비스사상 16,290

▶ 마산

강다현 8,050 김민현 17,350 무명 31,350 박봉희 30,010 송영구 6,870 신법철 8,720 신안어린이집41개 362,290 신안어린이집 50,000 강민희 2,780 고희나 4,200 김교현 1,860 김동혁 5,480 김민재 4,540 김자현 19,590 김지안 7,080 김지윤 22,670 김희정 3,830 박가영 9,430 박기서 6,630 박채은 8,370 성예빈 3,830 손은지 3,820 손하은 1,210 송다민 12,560 심창현 2,820 안상우 7,520 안유민 4,900 양은정 6,680 오은우 9,620 윤민주 6,300 이권욱 11,440 이서준 8,910 이아정 10,790 이영준 8,640 이윤준 11,470 이재민 5,530 이재한 6,800 이해솔 6,180 이호진 16,510 임영진 21,920 임혜진 15,070 조민아 7,840 조재희 4,650 조현진 12,060 차혜정 2,970 하동광 1,410 하동훈 1,190 허유성 3,190 윤승현 12,180 이명숙 20,380 이진규 12,560 이후희 30,360 정진희 31,870 제일은행가계지부 16,700 조수빈, 조재영 44,700 조재영 22,610 진영생 17,598 청원팔용중학교149개 692,130 (강규민 11,380 강민혁 1,530 강주승 530 구동섭 980 구현영 8,370 권익환 3,190 김산 2,400 김나영 2,050 김남희 7,610 김덕균 450 김동우 1,070 김동재 410 김동훈 880 김동진 20,710 김무영 1,190 김민승 770 김수한 2,890 김수향 3,930 김영주 110 김영준 280 김예은 23,090 김예진 1,390 김윤아 900 김민영 3,310 김정희 1,510 김제훈 8,840 김준영 11,490 김지원 2,060 김창현 1,770 김하은 830 김현정 6,510 김형우 1,520 김혜연 820 김희선 500 나

문의전화 02-587-8995

영이 2,750 남가영 3,900 남하영 7,100 다은이 2,070 류기현 10,000 무명 23,300 문양승 11,800 문혁주 2,020 민석규 4,650 박근우 7,820 박민지 1,780 박병주 2,780 박서린 3,240 박선경 140 박성환 3,270 박연담 1,960 박옥주 5,360 박재민 6,350 박종영 2,370 박혜성 8,790 박혜민 9,370 박혜연 1,570 보경 1,680 샘봄 2,230 서여진 7,480 서형대 39,650 성동욱 1,060 손가영 420 손경민 1,060 손영화 4,070 신동자 18,290 신소민 15,600 신지윤 7,130 안성현 13,190 안은빈 610 안혜지 530 양대 2,770 양민경 27,770 양지원 5,300 엄경호 1,570 엄해령 2,580 예스터 4,010 여유진 510 예나 3,000 예은 430 오솔지 10,730 오수민 5,240 옥다현 13,580 유수빈 400 유애림 2,100 윤영혜 8,260 윤일근 1,340 윤정주 350 윤주용 1,510 윤찬주 8,200 윤현근 330 이건룡 3,250 이광호 1,800 이다희 6,860 이민정 390 이석환 1,590 이선영 150 이상도 3,110 이소혜 6,640 이아령 2,920 이예라 2,610 이용진 6,770 이재림 660 이지원 22,100 이지은 3,900 이진아 3,470 이진우 1,400 이학민 5,280 이희성 4,660 임비 4,150 임지훈 1,120 장승배 1,810 전병구 1,160 전정훈 2,870 정민기 7,730 정성원 1,780 정성원 10,840 정수연 4,680 정숙영 4,480 정재성 800 정중수 1,000 정준성 820 정준영 5,090 조강민 1,460 조경아 1,170 조민기 4,430 조성휘 5,800 조수빈 3,730 조영경 1,210 조형준 8,450 조화정 1,340 증업 3,520 주윤미 2,950 주윤지 1,160 진지근 8,000 찰다원스 5,340 최병채 2,420 최수민 2,690 최유경 3,590 최윤정 260 최준호 980 하지혜 8,570 한민영 6,930 홍수빈 8,650 홍혜림 800 황수민 2,700 황준성 4,520 황서현 1,120 훈정 2,640 KMJ 1,170 최유정 30,760 최희미용실 30,240

▶ 서울

강남대저금통 94,080 강연수 85,590 갤러리삼바라 41,020 견민영 18,750 **광동중학교256개** 932,540 (1학년3반 2,850 2학년반반 1,000 2학년9반34반 4,510 강민지 3,020 강지연 3,910 강혜민 4,090 경호 2,380 고경은 1,650 고경은 1,650 고단비 100 고완석 11,330 고외정 890 곽귀성 1,080 구자훈 1,180 권수진 3,200 권아영 5,690 권은경 2,900 권이준 3,930 권이준 3,930 권지혜 2,240 권태용 7,860 김남기 3,730 김다영 3,400 김다영 1,470 김다현 940 김동희 3,660 김모아 1,300 김민규 6,310 김민규 14,120 김민영 8,480 김민희 3,360 김보성 940 김상현 5,290 김상현 5,290 김서영 2,070 김서정 2,200 김수민 11,790 김승하 2,700 김영규 2,130 김영훈 9,970 김원규 1,640 김용은 4,320 김원산 8,030 김유민 1,050 김유수 600 김은진 2,260 김이성 8,550 김정민 4,080 김장현 2,320 김주협 3,170 김주희 1,030 김지자 3,770 김지우 2,900 김지현 860 김진서 1,360 김진화 2,790 김한솔 3,650 김현아 1,370 김현정 1,450 김혜린 6,270 김혜진 3,200 김호연 470 김홍성 3,570 김홍재 1,020 김효진 1,480 김효진 1,480 김희동 3,410 김희진 1,000 남한지 3,640 노예원 7,620 노은정 1,760 노진이 1,700 도시호 1,850 려다희 8,990 무명 1,950 무명 870 무명 11,370 무명 3,000 무명 1,850 무명 350 무명 710 무명 3,740 무명 3,000 무명 3,400 무명 2,040 무명 1,960 문용준 1,120 문이슬 11,080 민지혜 960 박경준 1,910 박경택 5,120 박규남 1,220 박기영 7,240 박나현 5,060 박보비 2,000 박소희 1,220 박수진 5,470 박수진 280 박신영 1,220 박영민 3,390 박우민 720 박유림 3,680 박이민 1,260 박정민 1,190 박주은 1,270 박지윤 4,690 박지은 1,380 박채림 5,260 박현수 5,000 박혜진 640 방연경 2,380 방중민 3,400 배신아 3,080 백지수 6,590 범사실 5,100 서민근 5,620 서성준 6,260 서정철 1,000 서충찬 2,940 서진원 3,490 서채현 2,580 성영민 3,080 송윤주 3,100 송찬우 2,800 신국현 1,000 신선경 2,140 신선미 910 신은비 480 신은혜 810 신익현 570 심상우 380 안유라 3,140 안지수 2,780 안채영 4,890 양주연 2,000 양진우 1,450 염세영 610 염승훈 1,000 예림 15,140 오민정 2,280 오주석 4,570 오진주 3,240

오한솔 2,150 오현행 2,060 용유선 6,200 유다원 11,410 유다원 12,210 유소영 2,640 유연찬 1,900 유재원 400 유지수 3,050 유지원 4,250 유호름 3,330 윤다영 1,220 윤서희 450 윤소이 2,540 윤소희 1,790 윤창규 1,310 윤현지 4,250 이계훈 2,280 이다솔 5,510 이민진 16,260 이병수 820 이병철 6,760 이병훈 5,400 이선민 12,110 이상은 440 이세진 5,020 이세희 5,690 이슬립 6,750 이수민 660 이수민 2,270 이시백 6,000 이시현 1,280 이아영 3,150 이아현 1,040 이예린 690 이원준 1,290 이윤파 1,220 이율립 19,93 이재용 3,150 이주열 6,430 이지연 2,190 이지원 6,670 이진희 6,760 이찬주 4,160 이찬희 2,660 이태관 300 이하연 2,580 이하은 3,870 이현열 2,440 이현정 5,100 이홍은 3,340 임재연 1,370 임창민 4,350 장연주 880 전경원 2,010 전도연 1,880 전상우 2,400 전하연 1,580 정다빈 2,800 정다솔 2,430 정시우 1,910 정원목 890 정은 2,110 정은민 10,900 정지원 2,020 정채은 4,600 정혜선 4,560 정희연 3,840 조미애 910 조원경 8,260 조주혁 1,820 조혜원 5,410 주동균 2,150 주연지 2,250 주정혜 3,340 지영 5,300 지혜선 2,420 진예지 2,690 채순하 6,440 채현린 2,420 최소윤 3,130 최연화 1,620 최유림 7,040 최유진 5,290 최지현 370 최현우 1,100 최현욱 2,560 최현림 3,400 최희지 1,290 표상우 2,530 하나경 6,210 하여주 4,110 한선주 5,850 한윤지 5,850 한종혁 8,510 한학수 1,550 합지희 1,740 허혜빈 2,920 현민하 1,020 현수영 8,700 현지혜 16,590 혜연 4,190 홍교회 1,840 홍다예 4,910 홍민아 4,040 홍성재 9,820 홍성희 2,340 홍인혜 7,000 홍해빈 2,530 황영성 3,000 황유미 6,400 황인성 260 황인성 8,080 황재원 150) 권민우 47,600 권민하 44,020 권연수 45,200 권유선 17,400 김미선 5,860 김상애 24,000 김영숙 16,590 김영신 32,500 김주임 15,840 김춘미 41,160 김현정 27,600 김희태 14,690 나윤주 85,150 대차인한의원 38,670 무명 25,480 무명 126,400 무명 7,260 무명 21,150 무명 15,100 무명 10,340 무명 58,690 무명 10,300 무명 20,270 무명 14,390 무명 38,730 무명 38,630 무명 960 무명 22,000 미경 27,000 박보근 17,340 박상진 27,570 박영미, 정광명 21,470 박지령 46,480 방미라 13,000 백남순 19,210 백현초5학년1반 43,630 분당법당 15,960 비아중2-7 98,840 서수정 76,170 서울창도초4-3 9,480 서희정 26,780 성일조(자행스님) 33,200 송희승 11,920 신금옥 17,550 안혜경 24,540 양관민 68,740 오승연 10,130 용인차인홍영기 26,610 유경숙 73,820 유무늬 16,900 유수 30,560 유천경 31,800 옥미정 24,600 윤갑민 20,540 윤경호 41,000 윤정숙 3,750 윤정국 6,630 은평법당저금통 250,550 이경애 73,340 이경희 16,630 이권우 26,000 이근우 33,650 이상민 440 이상민 10,900 이상우 30,060 이영창 42,500 이은미 21,400 이정진 31,830 이찬희 15,390 장경아 27,440 장태식 40,120 적량초등학교 63,370 전기범 8,000 전정희 13,000정민정(임형준) 24,800 정소영 34,500 정숙 5,420 정숙 27,110 정희숙 20,000 조교회 29,580 조관희 17,100 조광연 68,930 조은진 17,020 조이현 41,620 조주래 30,390 죽이아기 16,550 평택중앙동우체국 22,500 한성복 58,400 한혜자 78,800 허민지,민영 23,540 허영진 23,330 현대중공업정문 13,060 현대중공업정문 36,170 황경자 4,540 GS25구로 동양지점 13,070 GS25구로동양지점 10,880 GS25구로동양지점 4,230

➔ 울산

강영아 4,860 고향솔단지 32,840 김찬숙 16,680 바이더웨이 3,260 박정숙 37,330 변약석 12,300 신현철 51,190 울산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 27,850 원갈곡수 35,820 윤성진 27,000 이경선 29,220 이병철 22,130 이해준,이유준 14,170 장일환 15,700 정말숙 17,980 한태균 44,910 현대하이코스미용실 41,000 LIG매직카 18,920

➔ 제천

기천문수련센터 39,700 김명희 19,940 김선숙 32,930 김영옥 28,810 무명 46,020 무명 19,420 무명 2,600 무명 24,700 손상수 9,620 손정훈 3,060 송현정 31,860 장락초등학교 154,710 정재홍 16,730

➔ 창원

신승(이등승) 45,500 전찬웅 21,290 진해란 36,660

➔ 청주

대신의원 19,150 무명2개 35,330 박선우 23,590 윤미성 21,990 이영진 12,190 정다운 22,410 한동섭2개 97,680 황혜영 16,220

➔ 해운대

(주)대성기계 11,930 강소담 65,040 강혜인 47,240 구정옥2개 49,050 김문주 38,580 김연금 39,590 김지연 35,640 김효미 36,940 무명 21,890 무명 17,030 무명 11,880 무명 29,670 무명7개 119,600 문원보 62,970 박영자 25,790 박유선 42,150 박주원2개 44,420 소문난돈까스 29,700 이미형2개 50,500 이수연 19,990 이영미 16,100 장순자 35,900 정광 42,010 정재희,정서윤2개 36,000 정채원부흥초6-3 2,710 조은화 20,950 해운대법당2개 14,280 허정택 20,900

! 거리 모금 현황 !

2011년 06월 01일부터 2011년 07월 31일까지

경주 115,680 구미 130,950 금곡초등 465,650 남양주 157,940 남양주평택거리 795,400 대구 4,020,654 대전 132,100 동래 1,930,990 마산 1,029,800 마산코요태 201,000 분당 40,000 서울 971,350 수원법회 223,720 신속회(열린법회) 163,000 연등축제사비지원매추기금 70,000 연수교1-7 91,000 연수고등학교 190,300 연수고NGO연구반 122,600 용인수지 74,850 울산 289,880 은빛초교1-누리반 150,600 이근오(열린법회) 156,800 이병현(열린법회) 174,930 이원형(열린법회) 398,000 입재식사부스 57,100 장지혜(열린법회) 129,250 전주 55,500 재천산업고 253,000 재천어린이날추기금 295,450 주도클럽학원 170,390 창원 423,874 청주 256,700 평택 482,620 포항 86,300 할안 129,020 해운대 4,236,479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지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긴급구조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